

DOI : 10.22859/bojoss.2025..72.003

보조사상 제72집(2025.07), 67~94쪽

스리랑카 탈팻(Talpat) 전통과 필사본 연구(2) - 야자수 잎 가공과정과 필사작업을 중심으로 -

레브파고다사라나시하* · 김 경 래**

목 차

- I. 서론
- II. 야자수 잎 제작과정
 - 1. 야자수 잎 채집
 - 2. 끓인 두루마리(Vattu)와 건조 및 절단작업
- III. 필사과정
 - 1. 방법과 형태
 - 2. 착색작업(Blackening Letters)과 캄바(Kamba) 제작
 - 3. 마무리 작업과 보관
- IV. 맺음말

* 제1저자,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박사수료, pagodasarana1985@gmail.com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부교수, wizkyung@dongguk.edu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탈팻(Talpat: 야자수 잎사귀)’으로 불리는 스리랑카 패엽경 전통에 대해 살펴보았다. 탈팻 전통은 스리랑카 내부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전승되고 있고, 그 전통적인 제작과정도 점차 축소되거나 간소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작과정은 스리랑카 불교의 의례적인 측면에서나 민간 신앙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 스리랑카 내부에서만 전승되고 있는 패엽경 제작과정 및 필사본의 구조와 특징 등에 대해 현지 자료 및 조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탈팻 제작과정은 먼저 야자수 잎을 채집하고 가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지정된 날짜에 제한된 야자수 잎만을 가공하는 이 작업은 자연을 존중하고 그 안에 깃든 나무의 신들을 신앙하는 고대 스리랑카인들의 정서가 투영된 일종의 종교의식이다. 채집된 잎사귀들을 다양한 약재와 함께 넣고 끓인 후 건조시키고 규격화된 크기로 절단하는 과정은 향후 불교경전이 될 필사본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전승하려는 바람이 담겨 있으며, 더불어 고대 스리랑카의 발전된 경전제작 수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가공된 야자수 잎에 필사하는 작업은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특히 탈팻 전통은 여타의 패엽경 전통과 달리 스리랑카 고유의 문자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필사자에 따라, 그리고 제작 지역 및 필사본의 종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필사된 글자들을 돋보이게 하는 채색작업과 마무리 작업들이 전통적인 예법과 절차에 따라 이어지게 된다. 현대 사회의 발달된 인쇄술과는 별도로, 이러한 탈팻 전통에 대한 이해는 스리랑카 고유의 불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되어준다.

* 주제어

탈팻(Talpat), 야자수 잎, 필사본, 패엽경, 스리랑카

1. 서론

스리랑카 패엽경 필사전통인 탈팻(Talpat)은 과거 남아시아에서 문자화 작업을 위해 사용되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었다. 탈팻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기원전부터 나뭇잎 등에 글자를 새겼던 전통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명확한 근거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원전 6세기에 이미 브라만 전통이나 자이나교 등과 함께 불교 역시 구전과 더불어 문자전승 또한 존재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¹⁾

스리랑카의 문자기록은 돌, 진흙, 금, 석판 등과 같은 단단한 물질에서부터, 나무 조각과 잎사귀처럼 비교적 유연한 식물들에도 남아있다. 주석서의 기록에 따르면 사탕수수 잎과 판다너스 잎, 연꽃잎과 바나나 잎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필사를 위한 재료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스리랑카에 서식하는 야자나무(*Corypha umbraculifera*)였다. 이 야자수 잎에는 세 겹의 층, 즉 양쪽에 가로줄이 있는 두 겹과 가운데에 세로줄이 있는 한 겹의 잎들이 있는데, 여기서 잎의 양쪽에 있는 두 겹이 필사에 사용된다. 이 나뭇잎은 불교문헌과 의료기록 제작 및 왕실에서 중요 기록을 위해 사용되던 것으로 싱할리어로 탈콜라(talkola) 혹은 탈팻(talpat)이라 불렸으며, 불교문헌에서는 팔라(tala)로 표기되고 있다.²⁾

불교가 유입되기 이전부터 스리랑카에서 야자수는 그 자체로 숭배의 대상이었다. 고대 스리랑카에는 “신들을 위한 지붕 짓기”로 불렸던 의식이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기도를 위한 사원을 만든 후 그 지붕을 야자수 잎으로 덮고서 천신들에게 바치는 제사 물품을 넣고 그 지역 일대 마을을 보호

1) Documentation Services Division(2007) p.V; Buhler(1904) pp.17-19.

2) Lagamuwa(2006) pp.102-109; Haeckel(1882) p.129; Deraniyagala(1954) p.166.

해주기를 염원하는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이처럼 야자수는 일반적인 나무가 아닌 종교적 성물로 여겨져 왔다.³⁾ 이후 불교가 유입되면서 천신들을 대신하여 불교승려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야자수와 그 잎 또한 호신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스리랑카 민속학자들은 이러한 민간신앙 속에서 패엽경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⁴⁾

영국이 스리랑카를 지배하던 시절부터 이 탈팻은 야자수 잎에 새겨진 필사본, 즉 패엽경을 의미하는 Palm-leaf Manuscript라 불리게 되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침략과 18세기 인쇄방식의 도입 등으로 인해 이러한 탈팻 전통은 주류 문헌전통에서 멀어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불교 경전 필사 혹은 예술 활동 등을 통해 현지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스리랑카에는 750,000개에 달하는 필사본들이 콜롬보 도서관(Colombo National Museum Library)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⁵⁾ 이들을 올바른 방식으로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들 필사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제작되고 보존되어 왔는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탈팻 전통을 바탕으로 한 문헌 제작 및 보존 방식은 이제는 구식이 되었으며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전통은 단순히 불교경전을 제작하고 보존하는 방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소중하게 전승되어 온 불교전통이었으며 스리랑카는 물론 인도와 남아시아 전역을 관통하는 종교유산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야자수 잎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필사본으로 완성 되는지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전승되어 온 스리랑카 고유의 전통제작 방식을 필드워크와 내부 전승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 및 소개할 것이다.⁶⁾

3) Lagamuwa(2006) p.107.

4) 스리랑카에 남아있는 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이러한 야자수 자체에 대한 신성시는 최소 11세기까지 이어졌으며, 야자수 벌목은 왕실에서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Epigraphia Zeylanica vol.1 p.93; 187.

5) Fernando(1982) pp.146-157.

6) 본 논문에 첨부된 16가지 종류의 사진들은 Sri Siddhartha Palm Leaf Manuscript

II. 야자수 잎 제작과정

1. 야자수 잎 채집

스리랑카 필사본 제작과정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본 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필사본 제작 방식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부서지지 않은 어린 야자수 줄기를 선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잘 자라난 야자수 줄기는 5-6미터 정도 되고, 한 줄기 안에 80-100개 정도의 잎들이 포함되어 있다. 잎은 중간에 주맥(主脈)을 중심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고 점점 얇아진다. 잎의 표면은 옅은 노란색을 띄고 있으며 고운 질감을 가진 반면 질긴 탄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 야자수 줄기들 중에서 곰팡이나 벌레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것들을 선별하는 것이 필사본 제작의 첫 단계이다.⁷⁾

이렇게 야자수 줄기 선별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야자수에 오르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한다. 야자수는 일반적으로 10미터 정도 되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안전한 작업을 위해 반드시 지지대 설치작업이 이루어진다. 나무에 오른 후 야자수 줄기의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대나무 관으로 만든 테이프를 감는다. 이 작업은 잎들이 햇빛에 노출되어 변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야자수 잎은 햇빛 노출 시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필사작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역마다 테이프는 다양한 재료로 제작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21일간 테이프에 묶어둔 상태로 보관된다.

야자수 줄기를 절단할 시기가 오면 점성술사 혹은 불교승려가 적절한 날

Study & Research Institute in Sri Lanka에서 제공해준 것이다. 이 사진들 대부분은 탈팻 전문가인 험마따가마 빼야닷시 스님(Rev. Hemmatagama Piyadassi)이 필사본 제작 교육을 받던 유년시절에 직접 촬영한 것임을 밝힌다.

7) Alhakoon(2012) p.217.

을 잡아준다. 절단 작업을 하는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오계를 지키며 나무에 공양물을 올리고서 절단 작업을 허락해줄 것을 나무의 신에게 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불교경전이 암송되는데, 이러한 전통은 고대 스리랑카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1: 나무정령에게 바치는 의식>

이러한 종교의식이 끝나면 나무에 삼배를 한 후, 절단 작업을 시작한다. 절단 작업은 먼저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까티약 껀빠마(kattiyak kepima)’라 불리는 절단 표식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밧줄을 절단 표식에 묶고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잡아당겨 다른 야자수 줄기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절단 작업을 한다.

베어진 줄기는 하얀 천에 싸여지게 되고, 이를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한다. 이 과정에서도 전통적인 종교의식이 진행되는데, 야자수 잎을 짊어진 사람들은 스리랑카 전통 악기들(Mangul bera, Daula, Tammattama 등등)의 연주 속에서 이후 작업이 이어지는 장소로 이동하게 된다.

이후 작업은 주로 사원에서 전문가 승려들에 의해 진행된다. 이들은 운반된 줄기를 작업하기에 앞서 먼저 세척작업을 통해 줄기 표면에 있는 열은 갈색 겨, 먼지, 균을 제거한다. 특히 세척작업을 할 때에는 바닥에 전용 매트 깔아야만 하는데, 이는 야자수나 소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것을 사용한다. 이 매트 위에서 야자수 줄기 끝부분을 제거하고 주맥을 분리하는



<사진2: 야자수 잎 이동을 위한 종교의식>

작업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매트가 사용되는 이유는 야자수 잎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먼지나 모래가 묻어 잎 표면에 흠집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사진3: 주맥 제거 작업과 Danu pihya>

야자수 잎들에서 주맥을 제거하는 작업은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작업을 위해 ‘삐히 까투와(Pihi kaṭuwa)’ 혹은 ‘다누 삐히야(Danu pihiya)’라 불리는 특수한 도구가 사용된다. 이것은 뾰족한 철필과 날카로운 칼이 달려있는 특수 가위로 주맥을 브이(V) 형태로 제거하여 붙어있는 야자수 잎들을 분리시키는 데 사용된다.⁸⁾

야자수 잎에는 두 개의 주맥이 있는데, 겉면의 주맥(Piṭa Iraṭuwa)을

8) Alhakoon (2012) p.217.

길고 단단한 반면 줄기쪽 주맥(Baḍa Iraṭuwa)은 유연하다. 야자수 잎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 두 개의 주맥들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거된 주맥들은 야자수 잎을 말릴 때 다시 사용된다. 이 작업을 위해 야자수 잎 끝부분에 구멍을 내는 작업이 주맥을 제거할 때 함께 이루어진다. 이 구멍에 주맥을 관통한 후 야자수 잎을 삶아서 말린다.



<사진4: 주맥 제거 후 천공 작업>

2. 꿰인 두루마리(Vattu)와 건조 및 절단작업

주맥 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잎들을 삶는 작업이 이어진다. 이를 위해 채집된 야자수 잎들을 두루마리 형식으로 15-20개씩 함께 말아서 묶는다. 야자수 잎을 두루마리로 묶는 것을 왓투(Vattu)라 한다.



<사진5: Vattu>

왓투가 완성되면 커다란 동향아리에 깨끗한 물과 약재에 사용되는 허브 등을 갈아서 넣고 함께 끓인다. 이 때 넣고 끓이는 재료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파파야 잎(*Carica papaya*), 파인애플 잎(*Ananas comosus*), 벨후르츠 잎과 열매(*Aegle marmelos*), 꿀풀 잎(*Clerodendrum pholomidis*), 스리랑카 고유종인 심플로코스(*Symplocos cordifolia*), 할마디 잎(*Ailantus malabarica*) 등이 사용된다.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향아리 맨 밑에 이 약재들을 깔 뒤, 그 위에 왓투를 넣는다. 그리고 악마콩(*Crotolaria retusa*)을 왓투 위에 다시 깔고 왓투가 물위로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나무 조각을 세로로 꽂아 넣는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넣고 약한 불로 다섯 시간 정도 끓인다.⁹⁾



<사진6: Vattu 삶기>

왓투가 제대로 삶아졌는지 확인하는 방법 또한 지역마다 다양한데,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왓투를 꺼냈을 때 흰 색 가루얼룩이 생기거나, 향아리에 쌀알 꼬투리를 넣었을 때 부풀어 오르거나, 향아리에 담겼던 파파야가 손으로 부서지면 삶는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여긴다.¹⁰⁾ 이상의 작업을 거친 왓투, 즉 야자수 잎 두루마리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추게 되며 필사에 최적

9) Dassanayake(1998) pp.48-336; Lagamuwa(2006) pp.111-112.

10) Lagamuwa(2006) p.112; Dhammarathana(2019) pp.35-48; Alhakoon(2005) p.307.

화된 표면 상태와 색깔을 유지하게 된다.

왓투가 잘 삶아졌으면 바로 꺼내지 않고 불을 끄고 자연적으로 물이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왓투가 식으면 꺼내서 깨끗한 물론 세척한 후 두루마리를 풀어서 미리 뚫어둔 구멍을 이용해 서로 엉키지 않게 걸어서 3일은 야외에서 햇빛을 쏘이며 말리고, 3일은 실내에서 직사광선을 피해 말린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잎이 유연하고 가벼워진다.



<사진7: Vattu 건조과정>

만약 야자수 잎을 바로 필사하지 않고 나중에 사용할 경우 다시 동그랗게 말아서 해충이나 벌레에 손상되지 않도록 향나무가 있는 곳 혹은 연기가 주기적으로 나는 아궁이 근처에 보관한다.

최종 건조과정에서 필사에 최적화된 잎사귀 표면을 갖추게 되는데, 일반적인 남성의 키 높이로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둥근 나무를 원통형 거치대로 삼아 설치한다. 이 때 거치대로는 종려나무(*Arica catechu*), 상록수(*Trema orientale*, *Alstonia scholaris*), 백리향(*Gyrinops walla*) 등 굵이 잘 가지 않는 나무들이 주로 사용된다.¹¹⁾ 그리고 건조과정에 있는 야자수 잎들을 거치대에 걸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며 문지른다. 이 작업은 잎의 양면 모두에 행해지며 수 백 번을 반복한다. 이를 통해 잎은 부드럽고 광택이 나며 양면 모두 필사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진다.

11) Sirisoma(1991) p.9.



<사진8: Vattu 최종 건조 작업>

이렇게 건조과정이 마무리되면 필사작업에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스리랑카 전통에서 적절한 필사본의 크기는 길이 15-80센티미터, 폭 5센티미터 정도이다. 불교 경전의 경우 길이 53센티미터(21인치)를 보통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아유르 베다와 같은 의학이나 점성술 등에 관련된 문헌들은 120센티미터(48인치) 길이로 제작되었다고 한다.¹²⁾ 따라서 필사 대상과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틀의 목재주형이 제작되었으며, 이 주형은 공작야자수(*Caryota urens*)나 흑단나무(*Diospyros ebenum*)로 만들어졌다. 이 틀은 2.5센티미터 두께로 된 두 개의 나무조각으로 구성되어 원하는 크기에 맞게 야자수 잎을 절단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그리고 ‘술리 따비마(Suli tabīma)’라 불리는 작업이 이어진다. 이는 용도에 맞게 절단된 야자수 잎에 철판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필사묵음을 권 단위로 묶기 위한 작업이다. 구멍의 위치는 필사되는 텍스트의 길이와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며 구멍 크기는 5-7밀리미터 정도이다.

12) Lagamuwa(2006) p.114; Nell(1932) pp.29-32.



<사진9: Suji tabima>

구멍 뚫는 작업이 끝나면 ‘라타 게마(Ratha gaema)’라 불리는 야자수 잎을 태우며 모양을 잡아가는 작업이 시작된다. 먼저 야자수 잎이 흩어지지 않게 배열된 두 개의 나무 블록을 구멍 사이에 넣고, 형틀로 사용한 나무판에 걸리도록 끼워 맞춘다. 이렇게 되면 야자수 잎이 형틀과 나무판 보다 커서 일부가 외부로 돌출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뜨거운 쇠막대기나 쇠물을 가열하여 태워버린다. 이 때 이전에 만든 구멍 두 개도 달군 쇠막대기를 이용해 태워서 마무리를 짓는다. 이 작업은 필사작업의 규격에 맞는 잎을 만들기 위함인 동시에 흰개미나 말벌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작업을 통해 필사를 위한 야자수 잎은 종이보다 더 질기고 선명한 재질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필사작업을 위한 모든 작업을 마친 야자수 잎을 팻 이루와(Path Iruwa)라 하며, 8-10장씩 묶어둔 것을 팻 까투와(Path Kattuwa), 아무 것도 쓰지 않고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놓은 것을 팻 게디아(Poth Gediya)라 한다. 참고로 스리랑카어 팻(Path)은 ‘잎(leaf)’을, 팻(Poth)은 ‘책(book)’을 의미한다.

III. 필사과정

1. 방법과 형태

필사작업은 펜으로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처럼 손쉬운 작업이 아니기에 전문적인 도구와 능력을 필요로 한다. 해당 언어에 대한 문법과 문자, 단어, 문장구성, 특수 마침표 작성 등 세부적인 능력을 전문가에게 교육 및 전수받은 소수만이 필사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스리랑카 전통 필사교육법은 인도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가장 먼저 싱할리 알파벳을 익히는 것으로 시작된다. 웰리빨라(Velipilla)라 불리는 작은 모래판을 세워놓고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알파벳과 짧은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한다.¹³⁾ 이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야자수 잎에 쓰는 연습을 시작하는데, 이때는 앞서 언급한 필사를 위해 제작된 잎이 아닌, 까라콜라야(Karakolaya)라 불리는 연습용 초록색 잎사귀를 사용하여 연습을 시작한다. 그리고 끝이 뭉툭한 철필인 ‘울까뚜와(Ulkatuva)’의 사용법을 익히기 시작하는데, 이 철필은 4-6인치 정도 되는 길이의 무딘 강철 펜으로, 현재 스리랑카에서는 구리 혹은 철이나 황동 등으로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스승은 제자를 위해 ‘구루 아카루(Guru Akharu, 스승이 쓴 글자들)’라 불리는 문자로 교본을 만들어 주는데, 이 교본을 ‘구루쿨라 호디아(Gurukula Hodiya)’라 부른다. 제자는 무딘 철필을 이용해 야자수 잎에 빠른 속도로 글자를 새길 수 있을 때까지 이 교본을 반복적으로 연습한다.

연습기간이 지나면 무딘 철필대신 날카로운 철필인 ‘판힌다(Panhiṇḍa)’를 사용하게 된다. 이 철필은 숙련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프레스 혹은 주조 금속 기술로 제작된다. 이를 위해 금, 은, 구리, 황동, 철 등의 금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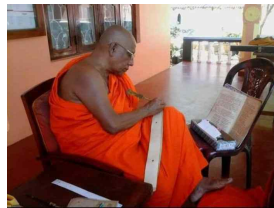
13) Coomaraswamy(1956) p.49.

이 사용되는데, 펜촉 부분은 반드시 강철 금속을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사진10: Panhiṇḍa>

뻥힌다는 10-20인치 정도의 규격화된 크기에 무게와 모양 등 손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제작된다.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끝이 뭉툭해지면 유석(Tel gala)으로 다시 갈아서 사용한다. 잡은 방법은 일반 펜과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전통적인 뻥힌다 사용법은 펜 사용법과 다르다. 뻥힌다를 사용할 때는 철필은 움직이지 않고 야자수 잎만을 움직여가며 필사를 해야 한다. 필사자는 ‘단다사나(Daṇḍāsana)’라 불리는 특수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한다. 하지만 현재 전문가들은 단다사나를 사용하지 않고, 바닥이나 작은 의자에 앉아 자신의 왼쪽 무릎을 세워 그 위를 필사를 위한 작업 면으로 활용한다.¹⁴⁾



<사진11: Daṇḍāsana를 사용하지 않는 필사방식>

필사는 야자수 잎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되며 행을 따라 직선

14) Coomaraswamy(1956) pp.207-208.

으로 한 면당 8-10줄이 필사되며 야자수 잎 양면이 모두 사용된다. 잎의 너비는 2.5인치인데, 양 옆에는 1인치의 공간을, 상하단에는 0.5인치의 공간을 비워둔다. 일반적으로 1인치의 길이에 7-8글자를 필사하는데, 이는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¹⁵⁾

이러한 크기의 글자들은 필사하는 방식에 따라 특정 형태를 유지하면 필사되었다. 현대의 '폰트'에 해당하는 이들 초기 글자형태들은 지역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들은 각각 물루꾸루(Mulukuru), 가자꾸루(Gajakuru), 시하꾸루(Sihakuru)라고 불렸다. 먼저 물루꾸루는 스리랑카 마하웰리 강 남부지역에 있었던 루후누 왕조(Ruhunu)에서 사용했던 필사형태로서 글자마다 모서리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어 아소까 비문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필사자들이 글자의 모서리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야자수 잎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차 둥근 형태의 글자로 변하게 되었다. 가자꾸루는 스리랑카 최초의 왕조인 피히티 왕조(Pihiti)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주로 타원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인도의 칸찌뿌라에서 건너온 학승들에 의해 전수되었다고 한다. 세 번째 고대 형태인 시하꾸루는 마찬가지로 둥근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스리랑카 서부지역인 깔루 강과 데두루 강 사이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마야 왕조(Maya)에서 사용된 글자형태이다. 이러한 고대 글자형태들은 서로 다른 지역의 인도에서 건너온 필사전문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현재까지도 전통으로 남아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소실되어 그 정확한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¹⁶⁾

이상의 고대 형태들에서부터 발전되어 현재까지 스리랑카에서 독자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자 형태로는 백조 형태 문자(Hansa Akshara, Sk. akṣara), 코끼리 형태 문자(Gaja Akshara), 사자 형태 문자(Simha Akshara), 진주 형태 문자(Muthu Akshara), 까마귀 형태 문자(Kāka

15) Dhammakusala(1969) pp.226-227.

16) Allepola(2008) p.57; Dhammakusala(1969) pp.226-227; Kulasuriya(1996) p.34.

Akshara) 등이 있다. 백조 형태는 작고 섬세하며 물에 떠다니는 백조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형태는 중요한 문서들을 작성하는데 주로 사용되었으며 날카로운 철필(Panhiṇḍa)을 글자 위에서 여러 번 회전시켜 백조 머리모양을 만들고 있다. 코끼리 형태는 실제 코끼리 등뼈모양의 큰 원형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대 마야 왕국에서부터 전승된 이 형태는 읽기 쉬운 문양으로 인해 특히 염불을 위해 제작된 필사본에 주로 사용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사자 형태는 마야 왕조에서부터 전승된 것으로, 둥근 모양의 글자에 사자 머리모양인 L자 형태를 추가한 것이다. 진주 형태는 동그란 진주모양의 구형에 선명하고 뚜렷한 글자로서 습자방식이 보편화되면서 필기체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폭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까마귀 형태는 마치 까마귀가 무질서하게 날아가듯 특정한 패턴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형태는 아유르 베다와 같은 의학서 필사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특정한 문자 형태에 무지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한 메시지 등을 남길 때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¹⁷⁾



<사진12: 다섯 가지 형태 문자>

17) Silva(1938) p.XIV; Kulasuriya(1991) p.2; Bandara(1997) p.100.

이러한 문자 형태들은 현대 사회의 워드작업에서 사용되는 폰트와 마찬가지로 고대부터 채택되어 사용되었으며, 하나의 텍스트 필사본에 여러 형태가 혼합되지 않고 통일된 형태가 사용되고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필사본이 제작된 지역에 따라 필사 형태가 결정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⁸⁾

2. 착색작업(Blackening Letters)과 캄바(Kamba) 제작

날카로운 철필로 필사된 문자들은 야자수 잎에 얇게 새겨졌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글자들을 잘 보이도록 드러나게 하는 작업이 바로 긴 과정으로 이루어진 착색작업이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검은색 안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진다: (1) 오래된 면이나 천을 태운 재와 송진기름(Dummala Oil)을 섞어 만드는 방법, (2) 케이폭 나뭇잎을 태운 재와 송진기름을 섞어 만드는 방법, (3) 숯나무 껍질을 태워 가루로 만든 뒤 수지성 기름을 섞어 만드는 방법, (4) 비단목화나무 숯을 가루로 만들어 송진기름과 함께 볶아서 반죽형태로 만드는 방법.¹⁹⁾

여기 사용되는 송진기름 혹은 수지성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리랑카 종에 속하는 나무들 - *Vateria accuminata*, *Stemonoporus wightii*, *Shorea oblongifolia*, *Dipterocarpus Glandulosus* - 의 뿌리, 혹은 죽은 나무 뿌리가 흙 속에서 석화된 것들을 사용한다. 특히 '빔 둠말라(Bim dummala)'라 불리는 흙 속에서 석화된 뿌리는 전통적으로 수요일과 토요일에만 채집이 허용되어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스리랑카 민간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채집된 나무 뿌리들을 점토로 만들어진 냄비로 끓여내야 하는데, 냄비에는 1인치 정도의 구멍을 뚫고 대나무 조각이나 파파야 관을 구멍에

18) Dhammakusala(1969) pp.227f.

19) Nell(1954) p.39; Piyadasa(1985) p.30; Gunawardhana(1997) p.37; Lagamuwa(2006) p.148.

끼워 안과 밖을 연결하는 튜브로 사용한다. 튜브 주위는 점토를 발라서 틈 없이 메꾸어야 한다. 그리고 뿌리들을 냄비에 넣고 물을 10:1의 비율로 넣은 후 강한 불로 가열한다. 그러면 냄비 안에 있던 나무 뿌리들이 녹으면서 점도가 높은 수지 기름이 관을 타고 냄비 밖으로 흘러나온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검은 색 안료가 완성되면 철판로 필사된 야자수 잎 표면에 넓게 펴서 바른다. 그리고 형질 조각으로 문질러 닦아주면 대부분의 안료는 씻겨지지만 검은 색이 파여진 틈 사이로 스며들고 동시에 수지 기름으로 인해 야자수 잎에 빈틈없이 흡수 된다. 잠시 후 쌀 껍질을 뿜아 만든 가루로 야자수 잎을 문지르면 남아있는 수지 기름이 가루 속으로 흡수되어 야자수 잎 표면에 은은한 광택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옅은 황백색의 여백에 검은 색의 필사된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착색작업은 야자수 잎에 수분이 남아 썩거나 해충으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따라서 필사본 제작을 위해 이 전통적인 제작과정과 절차는 여전히 중시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작업 방식이 전수되어 현재 까지도 지켜지고 있다.



〈사진13: 착색작업〉

이상의 필사 및 착색작업이 마무리 되면 야자수 잎들을 모아서 묶은 후 표지를 추가한다. 현대 출판된 책의 겉표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감바

(Kamba)'라 부른다. 캄바는 필사본 본문보다 길이와 폭이 더 크고 굵게 제작되며, 야자수 잎들과 함께 구멍을 뚫어 면실로 함께 묶어서 보관한다.

캄바는 귀한 목재로 제작되는데, 주로 스리랑카 종 흑단(*Diospyros ebenum* Koen), 스리랑카 종 인디안 키노(*Pterocarpus marsupium*), 스리랑카 고유종 목련(*Michelia nilagirica*), 텍토나 그란디스 등을 사용한다.²⁰⁾ 그러나 나무뿐만 아니라 금, 은, 금속, 상아, 거북이 등껍질 등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조각된 캄바도 많이 있으며, 왕실에서 보관되거나 중요한 필사본의 경우 보석이나 귀석 등으로 장식되기도 한다. 캄바는 오늘날 책표지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필사된 텍스트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새겨지기도 하고, 스리랑카 고유 예술 장식문양이 그려지기도 하며, 불교성지 혹은 아름다운 꽃 등으로 장식하기도 한다.

캄바에 그림이 새겨진 현존하는 스리랑카 필사본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3세기에 제작된 것이다.²¹⁾ 여기에는 16개의 불교성지와 자따까 등의 내용들이 당시 유행했던 그림 형식으로 장식되어 있다.



〈사진14: Kamba〉

전통적으로 캄바를 제작한 예술가들은 필사본의 내용과 캄바가 서로 자연스럽게 부합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주력해왔다. 이처럼 캄바는 그 자체로 당대 스리랑카의 예술과 역사를 대변하고 있으며, 필사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에도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되었다.

더 나아가 캄바는 야자수 잎을 손상시키지 않는 실용적인 도구이기도 했다. 야자수 잎은 시간이 지나면 수축하거나 휘어지거나 건조해지면서 부서

20) Lagamuwa(2006) p.150.

21) Nandadeva(2008) p.160.

질 수 있는데, 캄바는 이러한 손상을 최소화 시켜주는 용도가 있다. 또한 필사본을 한 장 씩 읽어 나갈 때 앞뒤에 붙어있는 두 개의 캄바는 시각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주는 효과도 있었다.

3. 마무리 작업과 보관

야자수 앞에 필사와 착색작업을 거친 후 캄바까지 완성이 되면, 이들을 함께 엮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 때 사용되는 실 역시 전통적인 방식, 즉 아마나 삼베 등과 같은 섬유를 넣고 모양에 맞추어 직접 손으로 짜서 제작된다. 종종 이 실은 붉은 색과 푸른 색의 혼합물로 네 가닥 혹은 여덟 가닥으로 엮어서 만든다.

이렇게 실이 완성되면 착색작업이 완료된 야자수 잎들에 구멍을 뚫은 후 함께 묶는다. 묶는 방법 역시 정해진 방식이 있는데, 먼저 열 가닥 정도를 서로 연결되도록 잎사귀 들에 촘촘하게 감싸고, 다섯 가닥 정도는 필사본의 가운데를 감는다. 필사본의 오른쪽 끝은 세 가닥에서 여섯 가닥을 묶어야 하며, 마지막에는 필사본을 가로질러 네 가닥의 실을 띠처럼 두 가닥씩 묶는다. 필사본 전체를 관통하는 끈의 한 끝은 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구멍보다 큰 장식물이 달려있는데, 이를 ‘팟 사키야(Pot Sakiya)’라 한다. 이는 일종의 장식물로서 동전이나 진주, 수정, 상아, 은, 구리, 동물의 뿔 등과 같은 것들을 가공하여 부착한다. 이는 실이 빠져나가지 않게 고정하기 위한 실용적 용도도 있지만, 동시에 필사본을 더욱 화려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엮음 작업까지 완료되면 이제는 완성된 필사본을 보관하기 위한 보자기인 ‘팟 렌수와(Pot Lensuwa)’를 준비한다. 이것은 정사각형 모양의 붉은 색과 노란색으로 제작되어 필사본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관 시 곤충들을 쫓아내는 효과를 갖기도 한다. 팟 렌수와는 필사본을 감싼 상태에서 어깨에 걸칠 수도 있는데, 필사본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용도로 오래전부터 이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사진15: Pot Lensuwa>

팟 렌수와에 싸인 필사본은 ‘팟굴(Pothgul)’이라 불리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된다. 현재 스리랑카에는 팟굴이라 불리는 사원들 - 예를 들어 Hanguranketha Pothgul, Ratnapura Pothgul, Weligalla Pothgul, Udunuwara Galengolla Pothgul 등 - 이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캔디 왕국 시절에 제작된 것들이다. 이러한 명칭은 당시 필사본 제작이 얼마나 왕성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엄청난 양의 필사본들이 보관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필사본들은 팟굴 내에 비치된 나무로 만들어진 금고인 ‘펫타가마(Pettagama)’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펫타가마는 필사본을 직사광선, 먼지, 열,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열쇠로 잠겨있어 도난 방지 용도로도 사용된다.



<사진16: Pettagama>

일부 필사본들은 님나무(*Azadirachta indica*) 잎사귀와 가지들과 함께 보관되기도 하는데, 이는 님나무 향이 곤충들을 쫓아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필사본을 열람하거나 부득이 외부에 비치해두어야 할 때에는 향나무종(*Croton laccifer* and *aromaticus*) 잎들을 사용해 곤충으로부터 필사본을 보호했다.

IV. 맺음말

본 논문에서 논자는 스리랑카 고유의 전통적인 필사본 제작과정을 현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스리랑카 필사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탈팻은 800년이 지났음에도 물리적 손상이 거의 없는 수준 높은 불전 제작 및 보존전통이었다. 현대 인쇄술을 뛰어넘는 이러한 결과는 고대부터 전해져온 스리랑카의 필사본 제작과 보존 방식이 비록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불교문헌을 가장 종교적이고 안전하게 제작 및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었음을 증명해준다.

단순히 필사 가능한 상태의 야자수 잎에 철폘로 글자를 새기고 색을 입힌 후 텍스트별로 묶는 것으로 끝날 것 같은 필사본 제작 과정은, 사실 복잡한 절차를 유지해야 함은 물론,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온 종교의식 또한 준수해야만 하는 까다로운 제작 및 의식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점은 이 탈팻 전통이 단순히 불교문헌의 출판과 복사 및 유지를 위한 물리적 작업이 아닌 그 자체로 하나의 불교전통이며 신앙 활동이었음을 시사한다.

고대 스리랑카 인들은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자료들 중 야자수 잎이 당대에 귀중하게 여겨지는 텍스트를 보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위해 왕실에서는 야자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칙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그 법이 준수되는 과정에서 그들만의 고유한 전통, 즉 다양한 의식

과 신앙 및 터부시되는 금기들이 확립되었다. 특히 야자수를 보호하며 잎을 채취하는 과정은, 단순히 스리랑카의 정령숭배 전통을 넘어서 그들이 자연을 정복 대상이 아닌 존중과 공존의 대상으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필사본 제작을 위해 안료와 수지기름을 만들고, 야자수 잎을 가공하여 완성된 텍스트로 제작하여 보관하는 방법들은 천연재료와 식물, 약초 등에 대한 고대 스리랑카인들의 수준 높은 지식과 수많은 실험의 산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필사본을 제작하는 전통적인 공정과정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태도와 더불어 발달된 기술과 수준 높은 예술의 총합이었다.

스리랑카 필사본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을 보존하고 준수하며 불교 뿐 아니라 다른 종교나 예술, 의술 및 학문 등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필사본에 담아 전승했다. 비록 식민지 시대 동안 스리랑카 전역에 소장되어 있던 필사본들이 서구인들에 의해 도난당하거나 파괴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수천 권의 필사본들이 소실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손실을 겪었음에도 스리랑카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필사본 제작산업이 학자들과 장인들에 의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필사본들을 보존하는 방식도 조금씩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전통 필사본 제작방식의 존립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스리랑카 고유의 불교문화인 탈팻 전통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방식절차 등에 대한 복원작업이 전문가들과 학계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원전류

Epigraphia Zeylanica being Lithic and Other Inscriptions of Ceylon Vol.1, Don Martino de Zilva Wickremasinghe, 1912.

사진자료 제공: Sri Siddhartha Palm Leaf Manuscript Study & Research Institute in Sri Lanka

2. 단행본 및 논문

Alhakoon, Champa N.K.(2005). Ancient conservation methods of Palm leaf manuscripts in Sri Lanka (Sinhala Article), Ven.Vilapitiye Ñāṇavamsa thero felicitation Volume pp.305-320.

Alhakoon, Champa N.K.(2012). The division of labour in the production of Sri lankan Palm Leaf Manuscripts,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Sri Lanka*, Vol.57,pp.215-228.

Allepola, Dipanjali(2008). *An Inquiry into the Palm Leaf Manuscript Writing Tradition and its Contained Writing Effects*, Sri Lankan Independent Publisher.

Bandara, Y.K. Tissa(1997). *Palm Leaf: Sri Lanka Writing Material System and Historical Background*. Colombo: Seri Publication.

- Buhler, J.G.(1904). *Indian Paleography*, Bombay: Indian Studies.
- Coomaraswamy, Ananda K.(1956), *Mediaeval Sinhalese Art*, New York: Pantheon Books.
- Dassanayake, M.D.(1998). *A Revised handbook to the flora of Ceylon*, Netherland: Balkema.
- Deraniyagala, PEP.(1954). Talagas Upata, Sinhala Verse (poem) Ethnology, Vol.2. CNMMS Vol.v, Colombo: Independent Publisher.
- Dhammakusala, Ambalangoda(1969). Sinhala Akuru (Sinhala book), Colombo: Independent Publisher.
- Dhammarathana, Kahatagasdigiliya(2019). An introduction to the traditional technical process used in Sri Lankan Manuscripts design. (Sinhala Article) *Manuscripts Studies* Vol.I Bhiksu University of Sri Lanka, pp.35-48.
- Documentation Services Division(2007). *Bibliography on palm leaf Manuscript in Sri Lanka*, Colombo: National Library and Documentation Centre.
- Fernando, P.E.E.(1982). 'A Note on Three Old Sinhalese Palm Leaf manuscripts', *The Sri Lanka. Journal of the Humanities* 8(1-2).
- Gunawardhana, Sirancee(1997), *Palm leaf manuscripts of Sri Lanka*, Sarvodaya Vishva lekha: Ratmalana.
- Heackel, Ernst(1882). *A visit to Ceylon*, New York: Peter Eckler Publisher.
- Kulasuriya, Ananda(1991). Sinhala Aksharamalawe klathmaka swarupaya Art Magazine Vol.39. Dehiwala.
- Kulasuriya, Ananda(1996). *Palm Leaves Manuscript Book*

- Writing Art*. Colombo: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 Lagamuwa, Ariya(2006). *Art of writing palm leaf manuscripts in the Sri Lanka*. Ministry of Cultural: Baththaramulla.
- Nandadeva, B.D.(2008). *Flowers for the Dhamma: Painted Buddhist palm leaf manuscript covers (kamba) of Sri Lanka*, London: Routledge.
- Nell, Andreas
- 1932 Ceylon Palm leaf Manuscripts books, *Ceylon Observer Annual*, pp.29-32.
- 1954 Palm Leaf manuscripts or ola books, *Ceylon Today* Vol. 3 & 4.
- Piyadasa, T.G. (1985). Libraries in Sri Lanka : their origin and history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time, *Studies on Sri Lanka series* No.1, Sri Satguru Publication.
- Silva, W.A. De(1938). *Catalogue of the Palm Leaf Manuscripts in the Library of the Colombo Museum*, Vol I. Colombo: Ceylon Government Press.
- Sirisoma, M.H.(1991). Preparation of an Ola-leaf Book, Observer Pictorial, *The Associated Newspapers of Ceylon Ltd. Sri Lanka*, pp.1-17.

〈Abstract〉

Sri Lankan Talpat Tradition: Traditional Approach and Its Implications

Author: Rev Pagoda Saranasheeha

/ PhD Candidate, Dongguk Univ. Seoul

Corresponding Author: Kyungrae Kim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 Seoul

This article analyses the Sri Lankan Palm-leaf Manuscript tradition called Talpat. Within Sri Lanka, the Talpat tradition has been preserved by a limited number of experts, while the traditional production process is gradually diminishing or undergoing simplification. However, this production process has become an important factor both in the ritual aspect of Sri Lankan Buddhism and in terms of folk beliefs or worships. This paper examines in detail through local data and researche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manuscript production process which have been handed down only inside Sri Lanka. The process of making Talpat begins with collecting and processing palm leaves. This process only limited palm leaves on a designated date is a kind of religious ceremony that reflects the religious life of ancient Sri Lankans who respect nature and believe in the gods of the trees in them. The process of putting the collected leaves together with various medicinal ingredients, boiling, drying and cutting them into standard sizes contains

the desire to safely preserve and transmit the manuscript, which will become a Buddhist script in the future, and is also a very example of the advanced scientific level of ancient Sri Lanka. Transcribing on those processed palm leaves is done only by experienced professionals who have gone through a certain period of education. In particular, the Talpat tradition has various unique letter-forms (Akshara), which seems to have been selected according to the scribe and the region of production and the type of manuscript. After that, the coloring and finishing works that make the transcribed letters stand out will be followed by traditional rituals and procedures. Apart from the advanced printing techniques of modern society, this understanding of the Talpat tradition provides a new approach to understanding Sri Lankan unique Buddhist culture.

* Keywords

Talpat Tradition, Palm-leaf, Manuscript, Palm-leaf manuscript (ptta), Sri Lanka

투고일자 : 2025. 05. 03.

심사기간 : 2025. 06. 22. ~ 2025. 07. 14.

게재확정 : 2025. 07. 21.